

# 남북 정상회담 門 열리나... 총선·대선 앞두고 성사 가능성

### 여권 등 선거 최고 '승리 보증수표' 최선 다할 것

### 靑·김관진 “지금 얘기할 단계 아니다” 신중모드

한반도에 발생했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25일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로 해소되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경색을 면치 못했던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군사적 긴장을 해결함은 물론 양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해빙무드가 최고위 회담인 정상회담으로까지 연결될 것인지가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성사 자체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의 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도 양측의 신뢰가 쌓이는 정도를 봐가면서 정상회담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곧 좋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여러 통로를 통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기자회견과 독일 드레스덴에서의 평화통일기반 구축 위한 3대 제안 발표 등이 나올 때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하는 추측이 보수진영 일각에서 나왔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경제가 더욱 악화하고 각종 악재가 연달아 터지자 이를 뒤엎을 반전카드로 남북정상회담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진보진영에서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내년 총선과 이듬해 대선을 목전에 둔 여권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최고의 '승리 보증수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진보정권이던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한차례씩 이뤄졌지만 보수정권인 이명박정부 때는 이어가지 못했다. 지난 2009년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비밀회동까지 하면서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남북 접촉이 양측 정상의 뜻과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사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 내 서열 2위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가운데 이뤄졌

는 점도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북측은 회담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화를 요청하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훈령을 받았고,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실시간으로 회담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점이 주목된다.

사실상 이번 접촉이 박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 사이에 '간접 회담'이 이뤄진 셈이다. 이번 접촉이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제야 간간 이어져 온 남북관계의 비정상성을 정상화하는 첫발을 떤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김관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이처럼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마주앉기까지의 여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 교류와 협력이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심이 있는 북 지도부가 이번 접촉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목표로 일단은 대화양식으로 나왔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강경양식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회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열린 SK하이닉스 M14 반도체공장 준공 및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朴대통령 '국정 2기' 스타트 순조

### 남북관계 남보에 靑 “이만하면 베스트”...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속도달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반환점인 25일 남북 고위급회담 접촉 타결이라는 선물을 받으면서 임기 후반기를 출발했다.

이번 남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만하면 베스트”, “남북관계의 역사를 볼 때 이 이상은 만들기 힘들다”는 평가에서 보듯 만족할만한 성과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을 위해 이번 합의대로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조치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민간 분야 교류를 활성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은 후반기에 남북관계 개선을 토대로 우리의 외교적 공간 확대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4일 진행되는 중국 방문과 10월16일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를 주도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대일 관계도 여유를 갖고 원칙 속에서 대응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특히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얻은 지지를 토대로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임기반환점인 이날도 별도의 관련 일정을 접거나 내부 행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이전의 SK하이닉스 반도체 준공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첨단 스마트 공장화 혁신적인 연구소도 낡은 노사제

도를 가지고는 잘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 첫날 적극적인 투자 독려와 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서 올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활력을 증진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야만 한다”며 “우리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와 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그날(반환점)에는 다른 해가 떠오르나오”라면서 기존에 해오던 역전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는 초지일관의 자세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개특위, 선거구획정기준 처리 27일로 연기

### 당내 경선시 안심번호 여론조사 허용 법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기준'과 관련한 여야 잠정합의안 처리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우려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합의안대로 확정위에 획정 기준을 넘길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나는 반면 비례대표 의석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합의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여기에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도 강하게 표

출했다. 여야 간사 합의안대로 처리한다면 농어촌 지역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원정수 확대 등을 포함,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27일 소위를 다시 소집, 여야 간사의 잠정 합의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당이 당내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대통령, 중국 열병식 참관

### 북한은 최룡해 비서가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달 3일 중국 '항일(抗日)전쟁·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열병식 참관이 확정됐다고 25일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중앙인민라디오방송(CNR) 등에 따르면 정명(鄭明)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관련 기자회견에서 “49개국 의원이 항전기념활동에 참석한다”며 “한국의 박 대통령도 중국 항전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측은 이번 열병식에 북한은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중국 측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방위 1위위원장 대신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
|--------------------|----------------------|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4등 - 족욕기(10명)      |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 3등 - 아이패드(3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